

# 광주·전남 '10월 역대 무더위' 기승

## 낮 최고기온 담양 30도 등 기상관측 경신 잇따라 기상청 "고기압 영향...다음 주부터 쌀쌀해질 것"

광주·전남 곳곳에서 이례적인 '가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환절기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6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고흥·곡성·구례·나주·담양·보성·장성·장흥·해남 16도, 강진·영광·영암·함평·화순 17도, 광주·무안·순천·신안·진도 18도, 광양 19도, 목포·완도 20도, 여수 21도를 기록했다.

낮 최고기온은 여수 26도, 보성 27도,

고흥·광양·목포·무안·신안·영광·완도·장흥·진도·함평·해남 28도, 강진·곡성·광주·구례·나주·순천·영암·장성·화순 29도, 담양 30도 등 가을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전날에는 10월 기준 일 최고기온을 경신한 지역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

특히 광양·순천·보성·진도 등 일부 지역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웃돌아 기상관측 사상 역대 10월 중 가장 높았다.

이밖에 강진은 역대 2위, 광주와 장흥도 역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기온이 높았다. 해남·고흥·완도·영광·여수도 역대 4위 최고기온 기록이 바뀌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은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부는 따뜻한 남서풍 영향과 일사량에 의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

이처럼 이례적인 10월 무더위가 광주·전남 곳곳을 뒤덮으면서 10월 일일 최고기온 기록이 연일 경신되고 있다.

완도·진도·여수·영광·장흥·광주 등에서는 10월 하루 최고기온 기록에 변화가 있었다.

7일까지 기온이 낮아져 8월 하순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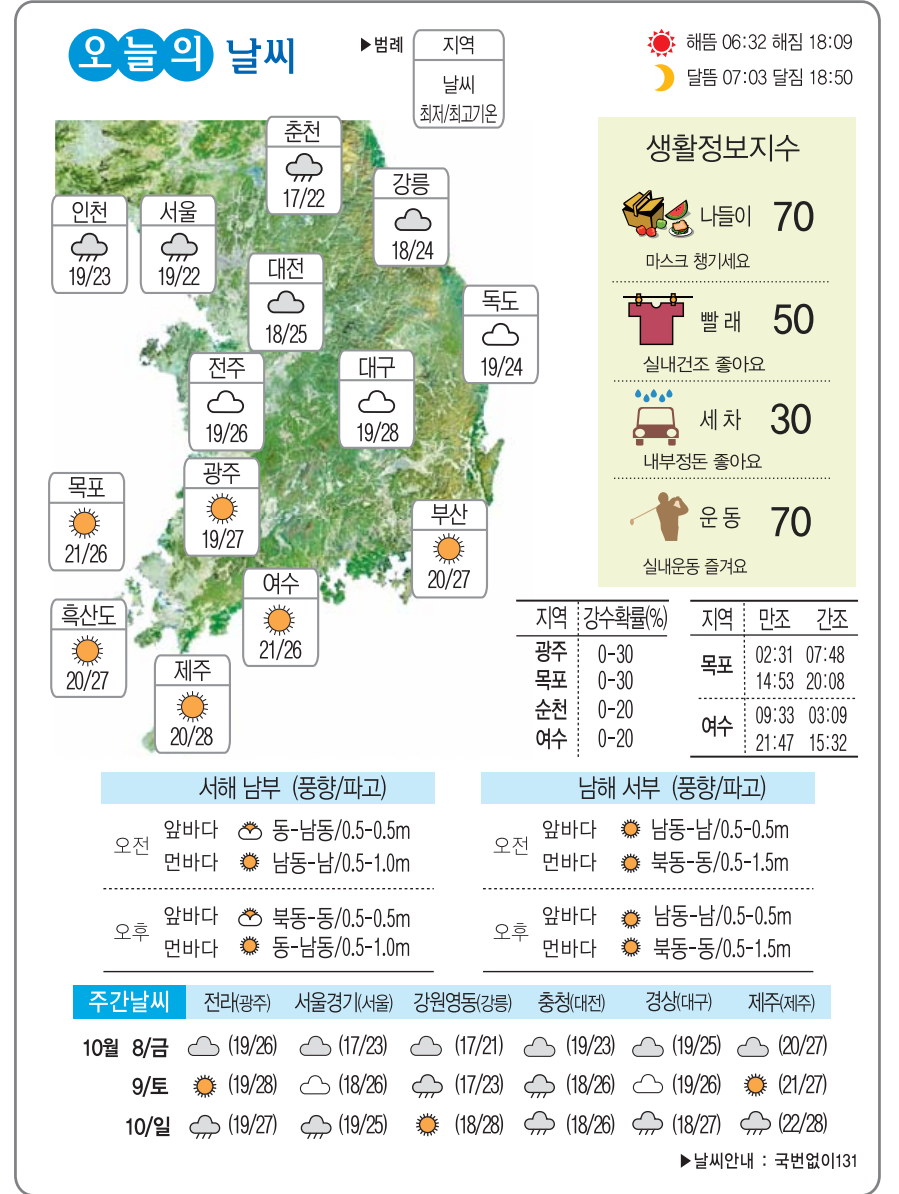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 8일 아침 기온은 16-21도 분포를 보이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높은 25-30도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남쪽에서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유입되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가을 더위도 다음주 월요일부터 물러가면서 점점 쌀쌀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태훈기자



##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북구 '대통령상' 수상

광주 북구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은 디자인 경영·개발 관리 육성을 통해 국가디자인산업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지자체와 우수기업,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북구는 올해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일원을 대상으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제9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기간 동안 전시관 외벽에 펼쳐지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시민과 관람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조태훈기자



6일 오후 서울 양재아트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디자인 대상' 시상식에서 문인 북구청장(오른쪽)이 대통령상을 표창 받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 제보 받는다

광주 북구의회가 6일 "오는 11월5일 까지 한달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주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 의견 제출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 또는 우편 ([61187] 광주 북구 우치로 77, 3층, 의회사무국), 북구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bukgu.gwangju.kr>), 팩스 (062-526-4997), 전화 (062-410-8506)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으나 제보자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다.

조태훈기자

## 광산경제백신회의 시즌2 출발

### 區, 종교계 참여 발대식 개최...성과 공유·백서 소개

지역경제 거버넌스인 광산경제백신회의가 종교계 참여를 발판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발 끈을 조여 맨다.

이번 종교계 참여로 완전체 진용을 구축한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유관기관과 연대를 통해 골목상권 살리기 등 경제위기 극복에 속도를 낼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광산구는 지난 5일 오후 구청 7층 운상홀에서 '광산경제백신회의 시즌2 발대식'을 개최했다.

광산경제백신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정리한 광산경제백신백서 소개 등이 진행됐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경제대표 44인으로 결성한 비상경제기구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1% 희망대출, 온라인 판로 지원, 투명마스크 지원 등 14탄의 경제백신을 처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구 기독교교단협의회가 지난 6월28일 상생협약을 통해 광산경제백신회의에 동참했다.

종교계에 이어 홍보 전문가까지 참여

하면서 총 46인의 대표단으로 새롭게 진용을 갖춘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이날 공식적으로 '시즌2'를 선언하며 "지역 유관기관의 참여와 연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종교계는 골목상권 살리기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앞으로 종교계와 연계한 공유주차장 개방, 지역경제 활성화 캠페인, 드라이브스루 로컬마켓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즌2에 바란다!' 시간도 마련됐다.

조태훈기자

## 서구 '지속가능발전 콘텐츠 공모전'

광주 서구는 6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의미한다.

공모전 응모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자유 주제의 창의적 콘텐츠를 동영상, 만화·포스터 등의 작품 형식으로 제작해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안재영기자

## 남구 공유물품센터 '캠핑 용품' 인기

광주 남구 공유물품센터가 6일 "코로나19 시대 가족 캠핑의 열풍을 타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남구 공유물품센터 대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이곳 센터의 물품 대여 건수는 총 57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름철 휴가와 캠핑 시즌인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 물품 대여 건수는 전체 대여 건수의 56%인 321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여 인기 물품은 캠핑용 의자를 비롯해 캠핑 장비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웨건, 매트, 4-5인용 텐트, 캠핑 그릴 등이었다.

캠핑용 물품이 인기 있는 이유는 1일 대여료가 매우 저렴하고, 코로나19를 피해 한적한 곳에서 가족 간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구청 별관동 1층 주차장에 위치한 남구 공유물품센터에는 생활공구 12종과 일상용품 13종, 캠핑용품 32종 등 121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료는 최대 물품가격의 2% 이내로 저렴하다. 조태훈기자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 늘푸른수목장의 장점 ■

- 1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2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3 재계약이 필요없이 영구사용 가능합니다.
- 4 온 가족이 산산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늘푸른수목장

수목장·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062) 412-6183